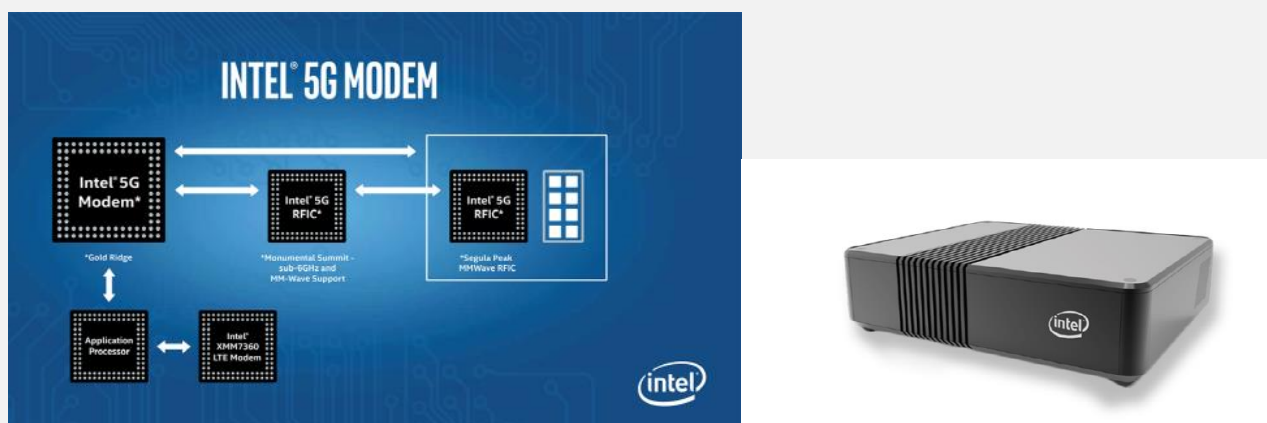


인텔, 5G 모델 발표, 초기 시장 '침범'

발행일시 : 17-01-05 11:47

인텔(대표 브라이언 크르자니크)는 5G 제품군에 인텔 5G 모뎀을 추가했다고 5일 발표했다.

모뎀은 글로벌 5G 모뎀으로 6GHz 이하의 대역과 고주파대역인 밀리미터파(mmWave)를 모두 지원하는 베이스밴드 칩을 탑재하고 있다. 6GHz 이하 5G RFIC(무선 주파수 집적 회로) 및 28GHz 5G RFIC가 결합되어 전세계 주요 5G 후보 대역 전반을 지원한다.



인텔의 새로운 5G 트랜시버는 6GHz 이하 대역과 고주파대역인 밀리미터파 스펙트럼을 모두 지원하는 5G RFIC이다. 이 트랜시버는 인텔 모바일 트라이얼 플랫폼의 일부로 지난해 초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발표된 28GHz RFIC와 결합되어 함께 작동한다.

인텔 5G 모뎀은 5G 시장을 초기 견인할 수 있는 분야를 지원하도록 설계됐으며, 주요 운영업체와 업계 선두주자들이 자동차, 가정용 브로드밴드, 모바일 장치 등의 초기 5G 구현에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5G 모뎀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6GHz 이하의 대역 및 고주파대역인 밀리미터파 기반의 5G를 모두 지원한다. 5Gbps 이상의 속도, 수백 MHz의 총 대역폭, 초저 지연시간 등 핵심적인 5G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6GHz 이하 5G RFIC 및 기존 28GHz 5G 밀리미터파 RFIC와 결합됐다. 다수의 5G 업계 포럼 규격을 준수한다. 낮은 지연시간 프레임 구조, 첨단 채널 코딩, 매시브 MIMO, 빔 포밍 등 핵심적인 5G NR 기술 혜택도 제공된다. 인텔의 XMM 7360 LTE 모뎀 등 LTE 모뎀과 결합되어 4G 풀백 및 4G/5G 연동도 지원한다.

5G RFIC의 경우 인텔의 5G 밀리미터파 RFIC와 결합된 경우 단일한 SKU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초기 5G 스펙트럼을 지원한다. 6GHz 이하 대역의 3.3-4.2 GHz 영역 지원 및 유연한 서브 채널화를 통해 중국 및 유럽에서의 구현 및 시험 사용 가능하다. 28GHz 대역을 지원하여 미국, 한국 및 일본에서의 구현 및 시험도 물론이다. 이중 편파 서브 채널화 등 2x2 MIMO와 4x4 MIMO 설정을 제공한다. 크기는 소형 주사위 수준이다.

인텔 5G RFIC의 샘플은 올해 상반기에, 인텔 5G 모뎀의 샘플은 올해 하반기에 출시된 후 즉시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문기 기자 (moon@nextdaily.co.kr)

<http://www.nextdaily.co.kr/news/article.html?id=20170105800006>

삼성 SDS, 스마트폰에서 독립한 웨어러블 보안솔루션 최초개발

발행일시 : 17-01-05 09:23

삼성 SDS(대표 정유성)가 타이젠 기반의 스마트워치를 지원하는 EMM 솔루션(EMM: Enterprise Mobility Management, 모바일 통합 보안솔루션)을 선보였다.

삼성 SDS 는 오는 1 월 5 일부터 8 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 2017 에서 스마트폰 없이 웨어러블 기기에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타이젠 기반의 웨어러블기기용 EMM 솔루션(이하 '웨어러블 EMM')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간 웨어러블이 기업의 업무용으로 사용되기에는 기업정보의 보안문제와 업무용 앱 관리의 불편함이 존재했다. 삼성 SDS 가 선보인 '웨어러블 EMM'은 보안성과 편의성을 강화해 기업의 현장에 적합하다.



삼성 SDS 의 '웨어러블 EMM'은 기존 EMM 제품처럼 스마트폰을 통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웨어러블 기기에 적용되는 솔루션이다. 공항의 지상근무인력 및 승무원, 테마파크 근무자처럼 현장에서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사용자들은 삼성 기어 S3 에 '웨어러블 EMM'만 설치하면 된다.

설치 후에는 관리자가 원격으로 웨어러블 기기를 직접 제어할 수 있어 업무용 앱의 설치와 삭제가 편리하다. 기기분실 시에도 화면잠금 설정이나 초기화를 실행해 기업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GPS, NFC(근거리 무선통신) 기능이 원격제어 돼 웨어러블 기기 배터리사용도 관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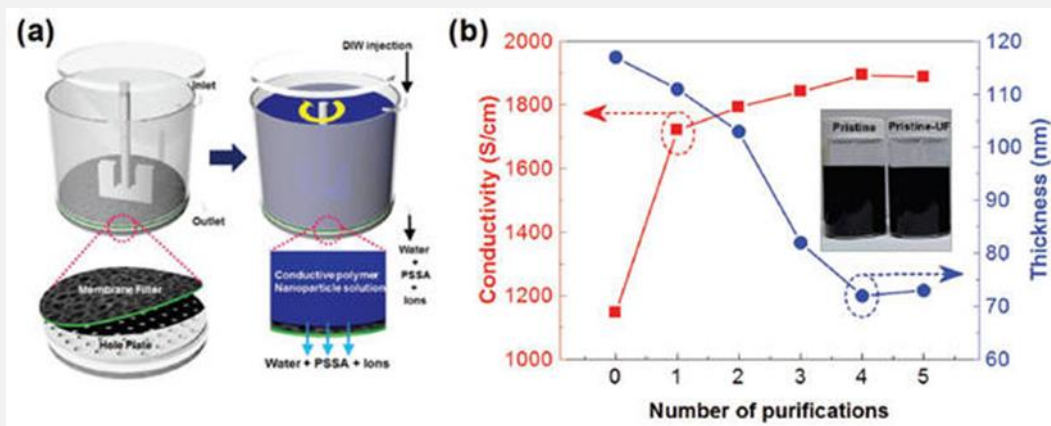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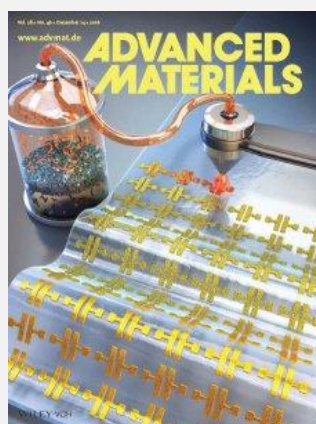
삼성 SDS 후원표 솔루션사업부문장(사장)은 “모바일 EMM 시장에서 이미 검증받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용 웨어러블 기기 관리를 위한 핵심 솔루션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 SDS EMM 솔루션은 단말, 앱, 데이터 원격제어 및 이를 통한 모바일 보안을 제공하는 기업용 솔루션으로 지난해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 산하 국가정보보호협회가 심사하는 보안인증(Common Criteria)을 세계 최초로 통과하여 그 보안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향선기자 hslee@nextdaily.co.kr

대량생산 가능한 고전도성 유기투명전극소재 개발

발행일 2017.01.05



대량생산이 가능한 고전도성 유기 투명전극 소재가 개발됐다. 김종현 연세대·노용영 동국대 교수 연구팀은 초정밀나노입자 공정기술로 기존보다 전기전도도가 2 배 높은 전도성 고분자 용액을 제조하고 이를 이용한 직접 인쇄공정으로 고효율 유연소자를 개발했다고 5 일 밝혔다.

전도성 고분자는 가격 경쟁력, 유연성, 공정성 등의 장점을 갖고 있어 투명 전극 소재로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대표적 투명전극 소재인 ITO 보다 낮은 전기전도도로 높은 성능을 구현하기가 까다로워 경쟁력 확보와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전도성 고분자(PEDOT:PSS)의 제조에 1 차 도판트와 분산제로 첨가되는 PSSA 는 절연체로 전도성고분자 박막의 높은 전도도 값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PSSA 는 PEDOT 과 결합된 것과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구분된다.

PEDOT 이 결합되지 않은 PSSA(free-PSSA)는 수상에 완전히 녹아 막(membrane)을 통과해 제거될 수 있고, 물에 녹지 않는 성질을 가진 PEDOT 이 결합된 PSSA 는 막을 통과하지 못해 잔류하게 된다.

막을 이용한 막 분리 공정은 합성시 첨가되는 free-PSSA 뿐만 아니라 반응 후 남아있는 촉매와 단량체 등 반응부산물을 함께 제거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기존보다 더 높은 전도도를 구현 가능한 전도성고분자 입자 용액을 제조할 수 있다.

연구팀은 기존물성(1000S/cm)을 뛰어 넘는 높은 전기전도도(2000S/cm)를 구현할 수 있는 전도성 고분자를 안정성이 높은 상태로 제조하고, 연속식 인쇄공정으로 유연 전자소재 개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종현 교수는 "본 연구에서 제조된 고전도성 유기용액소재는 직접 패터닝이 가능하고 연속 생산공정으로 유연 투명전극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면서 "향후 태양전지,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전자소재 제조에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연구결과는 재료과학 분야 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Advanced Materials)에 게재됐고 인사이드 커버 스토리 논문으로 선정됐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자동차-IT 협력 큰 장 섰다...글로벌 대기업 미래車 개발 `맞손`

발행일 2017.01.04

자동차와 정보기술(IT) 주요 기업 간 협력의 장터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한판 크게 벌어졌다.

현대자동차는 시스코(SISCO)와 함께 `하이퍼 커넥티드카 302` 플랫폼을 선보인다. 닛산은 마이크로소프트(MS) 음성인식 비서 `코타나`를 연계한 커넥티드카를 공개한다. 삼성전자는 피아트크라이슬러(FCA) 준자율주행 전기자동차 콘셉트 `포탈(portal)`에 360도 카메라와 센서 등을 공급하며 전장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3일(이하 현지시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17` 현장에서는 완전자율주행, 하이퍼 커넥티드카 등 고도화된 스마트카 개발을 위해 자동차와 IT 업체 간 협력이 속속 감지된다. 주요 다국적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간 개별 미팅도 대거 예정됐다.

현대자동차는 4일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컨벤션센터에서 `2017 CES 미디어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하이퍼 커넥티드카 302 플랫폼을 공개한다. 현대차와 시스코가 구상하는 하이퍼 커넥티드카는 IT와 차량을 융합시키는 차원을 넘어 자동차 자체를 `달리는 고성능 컴퓨터`로 만드는 것이다. 자동차 내부는 물론 자동차와 자동차를 포함해 집, 사무실, 도시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개념이다. 현대차는 하이퍼 커넥티드카를 기반으로 지능형 원격 지원 서비스, 완벽한 자율 주행, 스마트 트래픽, 모빌리티 허브 등을 추진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시스코의 차량 네트워크 관련 기술과 현대차 자동차 관련 기술의 미래 커넥티드카 302 개발에서 최적의 융합이 될 수 있다"면서 "통신망에 항상 연결돼 있는 하이퍼 커넥티드카는 모든 IoT 기기 허브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인텔은 BMW와 공동 회견을 갖고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로드맵을 발표한다. 두 회사는 차세대 사물인터넷 80(IoT)용 프로세서를 통해 디지털 계기판, 모바일과 연동된 엔터테인먼트 장치, 차세대 내비게이션 등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강화한 자율주행차를 개발한다. 인텔은 3일 전자지도 업체인 `히어(HERE)` 지분 15%를 인수하면서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준비도 마쳤다. 히어 인수를 통해 자율주행차 전용 고해상도(HD) 지도데이터 업데이트 방안을 마련하고, 실시간으로 지도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 개발한다.

닛산은 MS와 커넥티비티 기술을 선보인다. 양사는 MS가 제공하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커넥티드카 302를 개발한다. MS의 음성비서 서비스 `코타나`를 차량에 탑재, 커넥티드카가 IoT80 허브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카를로스 곤 닛산 CEO는 오는 5일 기조연설을 통해 세부 방향성을 발표한다.

삼성전자는 올해 CES를 계기로 자동차 전장 산업에 본격 시동을 건다. 파나소닉, 마그네티 말레리 등과 함께 FCA 준자율주행 전기차 콘셉트 `포탈`의 주요 협력사로 참여한다. 삼성전자는 포탈에 기어 360도 카메라와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176(AMOLED) 디스플레이를 공급한다. 실내 대시보드 상단에 위치한 커브드 AMOLED 디스플레이는 차량 주행 정보와 도로 상황 정보를 제공한다. 또 12인치 AMOLED 중앙디스플레이는 휴대폰처럼 인포테인먼트, 공조기 등을 조작할 수 있다.

폭스바겐은 신차 인포테인먼트시스템에 퀄컴의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를 탑재하기로 했다. 2018년에 출시되는 신차 인포테인먼트시스템에는 스냅드래곤 443 820A가 탑재된다. `A`는 자동차(Automotiv)를 뜻하는 것으로, 일반 스마트폰용 AP 대비 동작 온도 조건이 강화된다. 신뢰도 역시 높다. 폭스바겐은 2019년부터 출시되는 일부 차량에는 퀄컴의 롱텀에벌루션(LTE48) 모뎀칩 X12와 X15가 장착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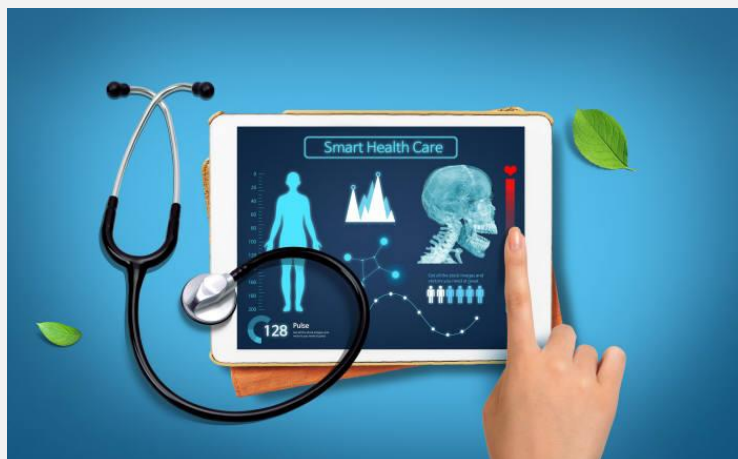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http://www.etnews.com/20170104000212>

블루투스 무선통신, 몸속으로 들어간다

발행일 2017.01.04

무선 저전력·고속 데이터전송에 특화된 블루투스가 `체내이식형 무선의료기기(MICS)`에도 적용된다. 관리가 엄격한 전용주파수 외에 대중화된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제품 개발비용을 줄이고 스마트폰과 연계한 혁신 서비스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활용하는 2.4 GHz 대역 블루투스를 `인명안전` 관련 서비스에도 부분 활용할 수 있도록 무선설비 기술기준 고시를 개정한다. 체내이식형 무선의료기기(MICS)는 진료를 위해 인체에 삽입한 통신기능을 갖춘 의료기기다. 심장박동기 또는 인슐린 투입기, 신경자극기기, 센서 등 기기 정보를 외부에서 확인하거나 제어할 수 있다.

미래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업계 협의를 거쳐, 인체에 치명적이지 않은 서비스에 한해 블루투스를 정보확인과 기기조정 등 기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마비 증상을 겪는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신경자극기가 대표적이다. 블루투스가 도입되면 파킨슨병 환자는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워치로 신경을 자극해 증상을 완화하는 기능이 가능해진다. 체내 인슐린 투입장치, 각종 센서도 스마트폰과 직접 연결해 곧바로 정보를 확인하거나 부분 조정할 수 있다.

그동안 MICS 를 제어하는 무선통신에는 402 MHz 대역 전용주파수만 쓰도록 엄격히 제한됐다. 심장박동기의 경우 전파 혼간섭이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관련 규제를 개선하더라도 심장박동기처럼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기기는 제한된다.

블루투스는 국제 연구가 활발한 비면허대역 무선 표준으로, 저전력·고속 무선통신 성능을 갈수록 진화시키고 있다. 칩셋 시장도 활성화돼 가격이 낮고, 대부분 스마트폰, 노트북이 탑재할 정도로 연결 범위가 넓다.

블루투스 기술 관련 무선의료기기 규제 완화는 이르면 4 월 완료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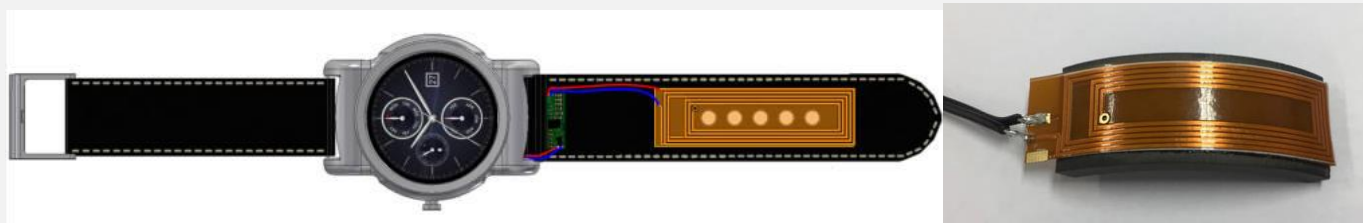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http://www.etnews.com/20170103000326>

KAIST, 스마트워치 시곗줄에 무선충전장치 구현

발행일 2017.01.03

자유롭게 휘어지는 폴리이미드 소재를 활용한 무선충전 장치가 개발됐다. 스마트워치 시곗줄에 적용하면 간편한 외부 무선충전 시스템이 된다. 더 가벼우면서도 무선 충전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



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는 스마트워치 외부에서 기기를 무선 충전하는 `외부 무선충전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3 일 밝혔다.

김 교수가 개발한 외부 무선충전 시스템은 폴리이미드 소재로 만들어 시곗줄에 적용할 수 있다. 시스템 두께는 400 마이크로미터(μm)에 불과, 일반 시곗줄과 유사하다.

무선충전기 위에 올려놓으면 충전된다. 코일이 접히지만 얇으면 성능 저하 없이 스마트워치를 충전할 수 있다. 충전 효율은 30%대다.

김 교수 연구팀은 코일을 두 겹으로 만들고, 전력 차단에 효과 높은 `페라이트` 소재를 차폐재로 사용, 충전 효율을 극대화했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무선충전 기능을 내장한 기존의 스마트워치에 비해 용량과 무게를 줄일 수 있다. 절약한 공간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기존의 스마트워치는 내부에 1 mm 두께의 무선충전 장치를 내장했다. 무선충전 과정에서 기기 내 `전자파 간섭 현상(EMI)`도 발생, 회로가 고장날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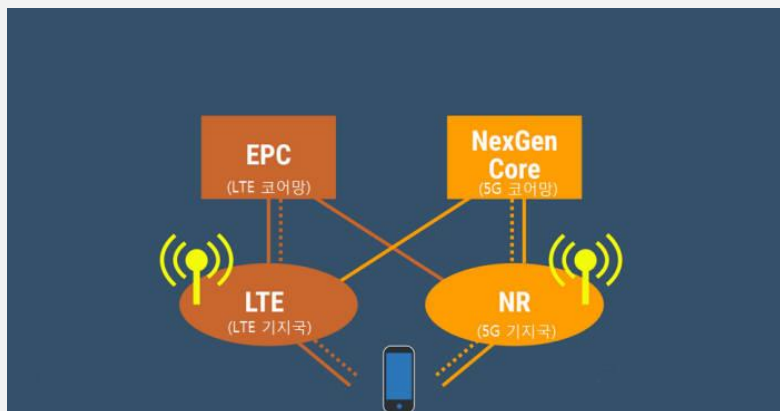
연구팀은 조만간 시제품을 제작, 국내외 기업과 상용화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김정호 교수는 "스마트워치 외부 무선충전 장치 기술은 기기 소형화와 성능 강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면서 "유연 소재를 이용한 원천 기술은 스마트워치뿐만 아니라 각종 웨어러블 기기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LTE-5G 융합 `논스탠드얼론(Non-Standalone) 5G` 나온다

발행일 2017.01.02



롱텀에벌루션(LTE48)과 5세대(5G)를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활용하는 `논-스탠드얼론(Non-Standalone)` 표준이 연내 제정된다. 이동통신사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5G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수 있어, 5G 상용화의 현실적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 이동통신 3사와 국제표준화기구 3GPP66는 3월부터 상반기 5G NSA331 표준 개발에 착수한다. NSA는 지난해 6월 부산에서 열린 3GPP 회의에서 도이치텔레콤이 제안했다. 3GPP에 참가한 세계 이동통신사는 3월 표준화 회의를 열고, 이르면 12월까지 관련 표준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NSA는 네트워크 가상화 원리를 적용, LTE 망과 5G 망을 단일한 네트워크처럼 활용한다. 이용자 휴대폰과 통신하는 LTE 기지국이 5G 유선 전송망(코어망)과 연결된다. 무선 전송속도는 5G보다 느리지만, 유선망 구간에서는 지연시간·대용량 연결 등 5G 네트워크 성능을 활용할 수 있다. 3GPP는 모바일 실시간 방송(eMBB)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동통신사는 5G 기지국을 구축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LTE 기지국으로 5G 코어망 성능을 활용, 넓은 지역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연시간을 10ms(0.01초) 대로 줄이고, 수만명에게 동시 생중계를 제공할 수 있다. 반대로, 필요에 따라 특정 네트워크 구간에서는 5G 기지국을 LTE 코어망에 연결해 활용할 수도 있다.

국내 이동통신 3사도 5G 상용화 과정에서 NSA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는 LTE 네트워크를 1Gbps급 속도로 진화시켜 새로 구축할 5G 망과 보완해 활용할 수 있다. 트래픽이 몰리는 도심 혼잡 지역에는 28GHz 고대역 주파수를 활용해 20Gbps급 속도를 내는 5G 망을 구축하고, 도로·교외 등 장거리 통신이 필요한 지역에는 LTE 망을 5G의 구성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3.5GHz 대역 주파수를 활용해 LTE보다 빠르지만 커버리지는 좁은 통신망을 구성해 융합 활용이 가능하다. 선택권이 넓어지는 셈이다.

NSA는 이동통신사 5G 도입에 과도기 역할을 하며, 상용화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통신사는 LTE 망을 유지한 채 5G 진화 방향을 보며 추가 투자 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LTE 속도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5G 전용 주파수를 활용하는 `뉴 라디오(NR)`가 대세가 될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5G 기본 방향은 새로운 주파수를 활용한 새로운 네트워크가 맞다"면서 "국내 이동통신 3사도 투자효율을 고려해 5G 상용화 과정에서 NSA를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https://www.mobileworldlive.com/devices/news-devices/amazons-alexa-to-arrive-on-huaweis-mate-9-smartphone/>

Amazon's Alexa to arrive on Huawei's Mate 9 smartphone

06 JAN 2017



LIVE FROM CES 2017, LAS VEGAS: Amazon's intelligent assistant Alexa – a major talking point at this year's CES – is to make its debut on smartphones following a deal with Huawei.

During his keynote this afternoon, the head of Huawei's consumer business group, Richard Yu, announced that its flagship Mate 9 will be the first smartphone to support the service.

Yu (pictured) was joined on stage by Steve Rabuchin, VP of Amazon Alexa, who declared that mobile "is a particularly exciting sector" for the AI voice service.

The move marks the first time that Alexa has been preinstalled on a phone, and there's a sense of irony given that the Mate 9 runs Google's Android operating system (Google has its own Google Assistant service).

The preinstalled app will be capable of all the usual Alexa tasks – setting alarms, making to-do lists, getting news and weather information, controlling smart home applications and requesting an Uber ride.

Huawei's Yu said the company is hoping to enable the voice assistant service by the end of Q1 (March).

Existing Mate 9 owners will be able to access the service via an over-the-air update.

Separately, Huawei also announced that the Mate 9 smartphone – a global success – will arrive in the US January 6 for \$599.99.

"Intelligent phone"

Artificial Intelligence (AI) was a major theme of Yu's keynote. He reiterated a previous ideology from Huawei that a smartphone, combined with AI, will create an "intelligent ph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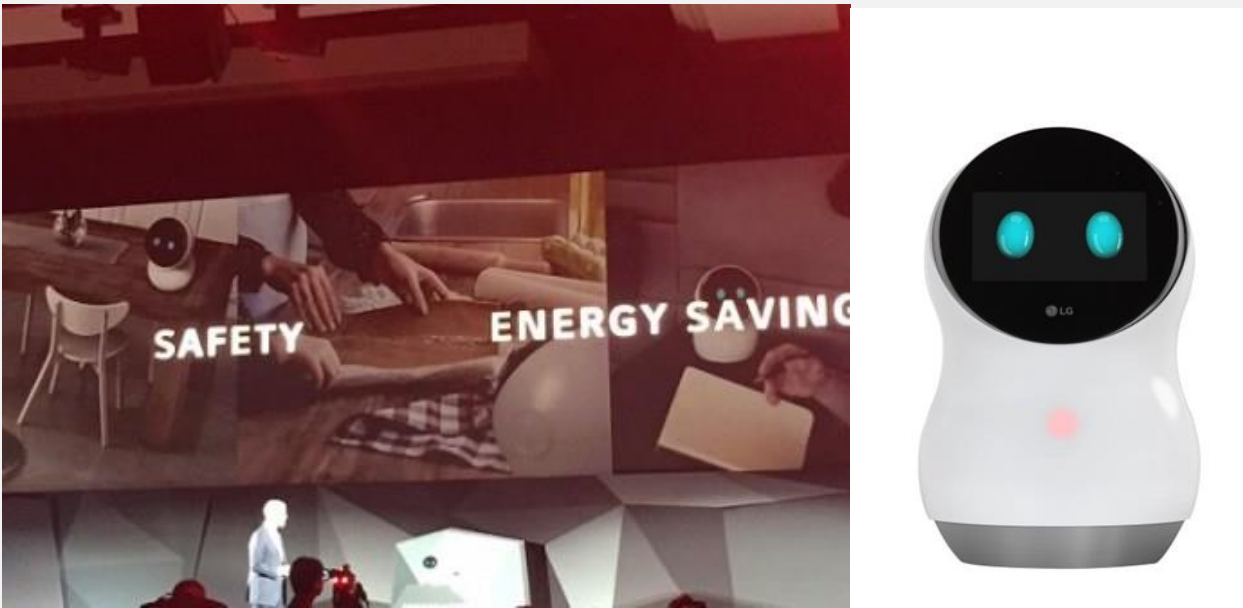
Yu was also joined on stage by Amit Singh, VP of business and operations for VR and AR at Google, who updated on the company's Daydream VR initiative. "The Mate 9 Pro and Mate 9 Porsche Design are now Daydream ready," he declared, adding that Google is also working closely with Huawei on its Project Tango AR initiative.

Author: Justin Springham

<https://www.mobileworldlive.com/featured-content/home-banner/lg-adds-to-home-assistant-hype-with-new-robot/>

LG adds to home assistant hype with new robot

04 JAN 2017



LIVE FROM CES 2017; LAS VEGAS: LG put the focu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for home applications, announcing the launch of Hub Robot, its version of a personal assistant that will step up competition with rivals in this emerging area of consumer technology.

Hub Robot forms part of a new line-up of intelligent robots released by the company at this year's CES, which also includes a new Airport Guide Robot, an updated robot vacuum, and another designed for lawn mowing.

In a press conference, the South Korean firm's David VanderWall, VP marketing – home appliances and consumer electronics, said AI and machine learning wa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for its smart application efforts, with Hub Robot serving as something of a home gateway, integrated with other smart home devices, and allows users to talk the device.

The device initially seems like a more humanised version of Amazon's Echo, with an actual face displayed, but it is worth noting it actually uses Amazon's Alexa voice recognition technology. It will also offer competition to Google Home, and other rivals investing in the AI ecosystem.

Among its features, LG said the robot "takes the concept of smart home to the next level", allowing users to complete household tasks through voice, and offer the ability to play music, set alarms, and get weather and traffic upgrades. The hub will also be complemented with mini robots that can be placed in other rooms of the house.

The Airport Guide Robot, meanwhile, forms part of the company's efforts to provide similar intelligence outside the home. It will be first introduced in Seoul's international airport, and will work as an intelligent information system for travellers.

Robots aside, the company also took the wraps off the Smart InstaView refrigerator, which provides an in-built intelligent personal assistant through Amazon Alexa, and other smart features. When the fridge is running low on supplies, users can utilise a touchscreen on the appliance to restock directly from – yes, you guessed it – Amazon.

Author: Kavitha Majithia

<https://www.mobileworldlive.com/featured-content/home-banner/qualcomm-looks-for-opportunities-beyond-phones/>

Qualcomm pushes Snapdragon 835 beyond the smartphone

04 JAN 2017



LIVE FROM CES 2017, LAS VEGAS: Qualcomm outlined a vision for its upcoming Snapdragon 835 processor to move beyond just connecting the smartphone, as the vendor eyes up emerging technology like AR/VR, autonomous cars and wearables.

In a press conference at CES 2017, the company revealed more details about its new processor, the successor to the Snapdragon 820, which it described as a “connected device chip”, while revealing partnerships with wearables manufacturer ODG to release the “first” AR smartglasses, and a new women’s smartwatch in collaboration with jeweller Swarovski.

Snapdragon 835

Qualcomm said the new processor had been upgraded to not only improve the performance of upcoming smartphones, with better battery life for example, but has also been designed to enhance visual quality and sound for AR and VR.

It also said the processor will be able to connect numerous devices, including tablets, wearables and laptop, with improvements made to connectivity, while better battery and its smaller size could help tap into IoT. The chip uses 25 per cent less power than the Snapdragon 820, said Qualcomm.

“Our new flagship Snapdragon processor is designed to meet the demanding requirements of mobile virtual reality and ubiquitous connectivity, while supporting a variety of thin and light mobile designs,” said Cristiano Amon, EVP, Qualcomm Technologies.

Snapdragon 835 is now in production, and is expected to ship in commercial devices in the first half of 2017.

AR/VR smartglasses

In partnership with Osterhout Design Group (ODG), one of the first announced devices to be powered by the new processor will be the R-8 and R-9 consumer AR/VR smartglasses.

The companies said the R-8 will be targeted at the consumer early adopter, while the R-9 offers a wide variety of different experiences, and can be used as a development platform for “sophisticated mobile AR/VR and smartglasses applications”.

Announcing the partnership, Qualcomm’s Raj Talluri, SVP product management at Qualcomm Technologies, said the new processor was designed to “accelerate AR/VR experiences”, with better power efficiency and performance, and helped ODG “meet their design goals and develop lighter, smaller and sleeker smartglasses”.

Smartwatch and V2X

In a day packed with announcements, the company revealed the launch of a new Android powered smartwatch, with models released for men and women in partnership with jeweller Swarovski. The devices will launch in March but the design itself was not shown at the press conference.

Meanwhile in autonomous cars, Qualcomm will participate in a new consortium, including Ericsson and Audi, to trial “Cellular Vehicle to X (V2X) “trials in Germany later this year, based on 3GPP’s latest Release 14 spec.

Author: Kavitha Majithia